

##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5-7, 10

미드라쉬 라바 (Midrash Rabbah) 는 모세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스틸러같이 고대 논평에 기록된 것 자체가 특이하다. 그것은 모세가 진실로 정말로 죽음을 원하지도 않고, 그는 모든 집행 유예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수를 사용하여 죽음을 피하려고 했다. 그는 죽음의 천사와 싸우기도 하고, 또한 때려 주기도 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공로를 하나씩 선포하기도 한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최소한 허용 될 것을 요청도 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목격한 것처럼, 저는 그들의 행운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충실하게 섬겼는데, 겨우 이것으로 당신은 갚을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때가 되면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토라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모세는 “주님이 저를 죽이기보다는 새로 바꾸라고” 요구도 한다. 천사들은 모세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영혼에게 그의 몸을 떠나라고 명령 하셨지만, 영혼 자체도 거절한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죽음의 입맞춤을 주시고, 우셨으니...

이 계정은 너무 통렬하므로 전체로 읽을 가치가 있다. 다음은 발췌 부분이다. 신명기 라바 (Deut. Rabbah) 11:5-10 [토라에 기록되었기를: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다.] "죽기 전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 33:1) 랍비는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그는 [모세] 죽음의 천사를 붙잡아 그 앞에 던져 버린 후, [각자의] 축복에 따라 각 지파를 축복했다.

랍비 메이어 (R' Meir)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천사가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오늘 주님이 그대가 이 삶을 떠나기 위해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 멀리 가! 나는 성령을 송축한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왜 그렇게 거만하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창조된 사람들이 있다. 하늘과 땅은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모세가 그에게 "나는 하늘과 땅을 침묵하고 [주]를 찬양 할 것이니라." 고 대답한다.

죽음의 천사가 두 번째로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죽음의 천사에게 [주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 (Ineffable Name)을 선포하자 [죽음의 천사]는 그의 이름을 듣고 줄행랑을 했다. 모세는 죽음의 천사가 세 번째로 그에게 왔을 때, "[이 법령은]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그분의 심판의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랍비 이차크 (Rabbi Yitzhaq)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영혼은 떠나려고 애썼다. 모세는 그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내 영혼아, 아마 죽음의 천사가 너를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있니?" [그 영혼은]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울음을 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울었니?" 그때 그녀는 대답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보냈다”(시 116:8). 모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너를 겐히놈 (Gen Hinnom; 지옥)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 116:8) 모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갈 운명인가?" 그녀는 대답을 이렇게 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시 116:9) 모세는 이 소식을 듣고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 116:7)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신 31:14) 모세는 [주]께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주의 주인이여,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이제 당신은 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아도나이 (Adonai)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 118:17) 그때 주님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이에 이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전 12:13).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여, 제가 죽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 오니 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신 4:39) 나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생겨나지 않았다" (신 34:1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라, 네 날이 가까웠다." (신 31:14) 랍비 에브 (R' Evu)가 말하기를: 모세는 말하기를: "우주의 주인이시여, [보라! (hinne!)]의 한 말 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600,000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했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10:14) [당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축정을 위한 축정?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내게 좋은 축정보단 나쁜 축정, 완전한 축정보단 짧은 축정, 충분한 축정보단 악의적인 축정을 내게 갚을 까요?]"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세, 나의 "보라," 출애굽기와 말라기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보라" 라는 표현은 또한 훌륭한 척도이다. 보라,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낸다 (출 23:20). 보라, 의인은 땅에서 요구 받을 것이다 (잠 11:31).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마 3:23). 그리고 내가 600,000 명 전에 나를 높이 올린 것처럼, 너는 의로운 사람들 550,000 명 중 한 명으로 들어올 시간에 너를 높여주리라. "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허락하셨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죄를 아니 지었으므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모세가 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위대한 이름으로 맹세할 기회를 포착하시니...

모세는 자기에 대한 법령이 인봉 된 것을 보고 금식하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썼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 법령을 무효화 할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세가 그때 또 무엇을 했는가? 그는 굶은 베로 감싸고 흙으로 몸을 감쌌으며 하늘과 자연의 질서가 흔들릴 때까지 거룩하신 분 앞에 기도와 간청으로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축복한다. 하늘과 자연들은 말하기를 "혹시 이것이 거룩하신 자의 소망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자 천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거룩하신, 축복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

그때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일곱] 하늘과 모든 법정의 모든 문에게 모세의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되고, 모세의 기도는 인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찬송을 담당하는 천사 아크레지엘 (Achreziel)를 급히 부르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시길, "신속히 내려가서, 천국에 있는 모든 문을 잠가라.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의 목소리가 천국으로 뚫고 들어올까 하느니라."

천사들은 모세의 기도 소리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려고 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것을 찢고 자를 수 있는 칼과 같았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의 기도는 자비스러운 이름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늘의 천사인 자자엘 (Zagzag-el)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그 시간을 [예언자 에스겔이] 암시하며 말하기를: 그리고 그 뒤에 나는 큰 서둘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의 자리에서 아도나이 (Adonai)의 영광을 찬송할 지어다." (삿 3:12) 그리고 "서두른다"는 것은 반드시 떨림을 의미하며, "위대함"은 분명히 모세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도나이 (Adonai)의 영광이 찬송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의 전차 (Divine Chariot)과 불같은 선 천사 (Seraphim)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모세의 기도가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되고, 모세를 호의도 하시지 않고, 생명을 더 길게 하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못들어 가리라" 하자, 그 천사들이 선포한다: 그분의 위치에서 아도나이 (Adonai)의 영광 [그분의 위치와 지역에서] 크거나 작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편애가 없으시다...

모세는 주님께 말하기를: "우주의 주인님, 힘든 일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이 당신의 이름을 명백한 것을 믿게 한 것을 알고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라와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고통을 목격했듯이, 저도 그들의 좋은 행운을 목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행운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가지 않을 것이다. (신 31 : 2) 그렇게 하신 주님은 토라를 거짓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품꾼 관련하여] 썼습니다. 그날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 할 것이라고. 그가 일한 그 날에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는 곤궁하고 가난하고, 그 품삯을 바라니라' (신 24:15) 이것이 제가 힘써 일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4 년간의 일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마엘, 악한 천사, 모든 고소하는 천사들의 추상인, 그는 매시간마다 모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모세가 죽을 시간이 올 것인가? 그러면 그의 영혼을 내가 내려가서 빼앗을 수 있을까?" 고소하는 천사 중에는 사마엘처럼 사악한 자도 없고, 예언자 중에 모세처럼 의로운 자도 없다... 그래서 사마엘 악한 천사는 모세의 영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천사] 마이클 [이스라엘의 수호자]는 언젠가는 올 때 내 입을 웃음으로 가득 채울까?"

한편 모세에게는 오직 한 시간 만 남았다. 모세가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께 말씀한다. "우주의 주인님, 만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를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게 하시면 제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죽음에 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를 '다가오는 세계 (World to Come) 에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또한, 너는 내 토라를 사기로 만드는 것이다. 나의 토라는, 너의 손으로 쓴, 토라에 적혀 있듯이: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 32:39) 모세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우주의 주인님, 만일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들의 짐승처럼 풀과 물을 마시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게 하세요. 그리하여 내 영혼이 그들과 같이하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대답했다: 그만!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민 3:26)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주의 주인님, 저를 이 세상을 아무 방향으로 날아다니는 새, 매일 음식을 모으고, 저녁에는 둥지로 돌아가는 새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그들과 같이 하게 하소서."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만! " "그만"의 의미는 무엇이나? 주님은 모세에게 "너는 충분히 말했다."라고 대답하셨다.

모세는 아무도 죽음의 길에서 그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다." (신 32:4, NIV) 그런 후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부인할 수 없는 이름 (Ineffable Name)" 을 적었다. 모세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 왔을 때 하치누의 노래 책 (the Song of Haazinu)은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다.

그 시간에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께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길: "가브리엘, 가서 모세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주의 주인님, 60 만 명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죽음을 제가 어떻게 목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질을 지닌 자에게 제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미가엘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모세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미가엘이 대답하기를: "우주의 주인님, 저는 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마엘에게 명하신다. "가서 모세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즉시 [사마엘]은 분노로 옷을 입고 검을 걸치고 냉혹으로 감싸고 모세를 만나러 갔다.

사마엘은 모세가 앉아서 “부인할 수 없는 이름 (Ineffable Name)” 을 적어 놓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태양의 빛처럼 빛이 났는데 그는 마치 만군의 천사와 같더라. 사마엘은 그를 두려워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어느 천사도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모세는 사마엘이 나타나기 전에 그가 오는 것을 알았고, 사마엘이 모세를 보고 떨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감싸기 시작했는데 마치 야기를 나는 산모와 같더라. 그리고 그는 모세 앞에서 뻔뻔스럽게 얘기를 못 하고 있자,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 57:21)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사마엘이 대답하길: “당신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왔다.” 모세가 그에게 물어 보기를: "누가 너를 보냈지?" 그가 대답하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세가 그에게 말한다: "너는 내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길: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내 손에 넘겨진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오는 모든 사람보다 능력이 더 크다." 사마엘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 주어라.” 모세가 대답했다: "나는 암람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걸어 다니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했는데, 나는 아직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아니하였다. 내가 3 개월 됐을 때 예언을 했고, 불의 불길 속에서 계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내가 거리에서 걷고 있을 때 나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 왕의 머리에 있는 크라운을 벗겼다. 내가 80 세 였을 때 나는 이집트에서 노래하고 기이 한 일을 하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60 만 명을 뽑았다. 나는 바다를 열두 부분으로 나눴으며, 나는 쓴 물을 달콤하게 만들었고,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 토라를 받았고, 천사들과 싸우고, 나는 불의 토라를 받았고, 나는 [주님의 불의 왕좌] 밑에 살았다. 나는 불의 기둥 아래에서 피난처를 취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다. 나는 하늘에 의회를 압도하고, [천사들의]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했다. 주님의 오른편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 나는 시혼과 옥에 전쟁을 일으켰으며 두 거성의 이교도 거물은 발목에 물이 닿지 않았을 만큼 거대한 자이다. 나는 태양과 달이 여전히 높은 곳에 멈추고, 나는 두 명의 거인을 내 손에 든 지팡이로 그들을 쳐서 죽였다.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떠나가라, 사악한 자여, 그리고 나를 감히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 가라. 나 앞에서 도망가라. 나는 너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즉시, 사마엘은 돌아가 전능자에게 보고했다. 기록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이 사마엘에게 명령하시길, “다시 돌아 나가서 모세의 영혼을 가져오라.” 즉시 사마엘은 칼을 검집에서 뽑았다. 즉시 모세는 [사마엘]에 대한 격노하여 “부인할 수 없는 이름 (Ineffable Name)” 이 새겨진 찍혀있는 지팡이로 사마엘이 도망갈 때까지 그의 모든 힘으로 때렸다. 모세는 그를 “부인할 수 없는 이름

(Ineffable Name)” 을 가지고 쫓아가 사마엘 눈 사이에서 있는 영광의 빛을 뺏고 눈을 멀게 했다.

이 시점에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선포하길: "너의 죽음의 때가 왔다." 모세가 그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에게 말하기를: "우주의 주인님, 숲속에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낸 날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NIV) 제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시내 산에 서 있던 때를 기억하시죠? 제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를 죽음의 천사의 손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러자 천국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 스스로 너를 수반 할 것이고 너를 매장하리라."

그 시간에 모세는 자신을 성(聖) 천사처럼 성화하고, 주님은 모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천사들인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자자그엘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미가엘은 모세의 침대를 놓았으며, 가브리엘은 모세의 머리에 고급 베의 천을 깔고, 발밑에 자자그엘이 천을 펼쳤다. 미가엘은 한 편에 서 있었고, 가브리엘은 반대쪽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세, 네 눈을 감아라." 모세가 명령대로 하고. “네 가슴에 손을 대라.” 모세가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발을 서로 옆에 두어라.” 모세는 그렇게 순종한다.

그때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분이 모세의 육에서 모세의 영혼을 불으시며 말씀하시길: "내 딸아, 나는 너를 120 년 동안 모세의 몸에 머물러있는 기간을 정했다. 이제 너의 시간이 다가왔다. 더 이상 지체 없이 떠나가거라." 그러자 그녀는 대답하길: "우주의 주인님, 당신이 모든 영광 모든 혼의 엘로힘이며,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이 당신의 지키심에 있고, 당신이 나를 창조하고 형성해주시고, 120 년 동안 나를 모세의 몸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몸보다 더 순수한 몸인데 이 세상에 악취나, 지렁이나, 뽕루지도, 해충 없는 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니: "영혼아, 나 오너라. 지체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가장 높은 천국으로 데려 올릴 것이고, 너를 케루빔과 세라핌과 다른 천사 군대 옆에 영광의 보좌 아래 두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대답하길: "우주의 주인님, 두 천사, 우사 (Uzah) 와 아젤 (Azael)이 당신의 신성한 임재 가까이에서 내려와, 땅의 딸을 탐내며 땅에서 그 길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드러내셨을 때 그 순간부터 모세는 그의 아내와 성관계가 없으므로 [천사들보다 더 큼니다]...제가 간청합니다: 저를 모세의 몸에 남아있게 하소서. "

그로 인해 주님은 모세에게 입 맞춤을 하시고 입맞춤으로 영혼을 빼앗아 가셨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분,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Holy One, blessed be He)이 우셨다... 기록되었듯이..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신 34:10, NIV). 땅이 울면서 말하기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미 7:2, NIV) 여호수아가 주인을 찾았는데 그를 찾지 못하자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주에 없어나이다. (시 12:1, NIV) 그리고 사역하는 천사들은 말하길: “여호와의 공의... 행하도다” (신 33:21, NIV)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했다: “세우신 법도를.” (신 33:21, NIV) 모두가 말한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사 57:2)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잠 10:7, NIV)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정해졌다.